

출애굽기 1:16의 מִצְרַיִם 번역 재고

장석정*

1. 서론

성서의 본문을 번역한다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사본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선택되지 못한 사본들을 소개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의 경우에는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가 11세기에 필사된 레닌그라드(Leningrad) 사본에 기초한 인쇄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필사된 사본들이 비록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고대의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칠십인역(Septuagint= LXX)도 구약성서의 본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출애굽기의 1:16에 나오는 מִצְרַיִם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본문의 해석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¹⁾ 이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애굽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야콥의 가족들은 세월이 지나서 그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1:7). 이에 대해 적군이 침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배신하여 적군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은 그들에게 더욱 혹독한 일을 시킨다(1:13). 이 첫째 인구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욱 불어나자, 왕은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1:16).²⁾ 이것이 애굽 왕의 둘째 인구 억제 정

* 관동대학교, 구약학.

- 1) 출애굽기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권성달, “출애굽기 3:14의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6 (2010), 7-31.
- 2) 노트는 두 명의 산파로 충분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살았다는 점과 아직 이스라엘의 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틴 노트, 『출애굽기』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28;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살려주게 된다(1:17). 왕이 이들을 소환하여 문책을 하자, 산파들의 대답은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이미 아기를 해산한다고 대답한다(1:19).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산파들의 대답에 대해서 애굽 왕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서에는 이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산파들은 왕이 내리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1:21).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산파들의 대답이 어떤 것이기에 애굽 왕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 성서를 보면, 이에 대한 실마리를 결코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³⁾ 왜냐하면 BHS 본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번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말 성서의 본문으로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16절에 나오는 **מִיָּדָה**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왜 엄연히 BHS에는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물론 LXX는 이 단어가 본문에 없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 성서들은 그것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BHS의 본문이 번역하기 어렵거나, 다른 내용들과 상충된다고 여겨질 때는 종종 우리말 번역 성서들은 BHS의 본문 대신에, LXX의 본문을 번역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들에 도 BHS의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번역 성서의 각주를 통해서 밝혀주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런 우리말 번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독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번역을 위한 노력이 이 연구에 나타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번역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부터 먼저 제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애굽 왕의 명령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산파들의 대답에 대한 애굽 왕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애굽 왕의 명령을 우리말 성서의 번역으로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 단순히 산파들은 산모들의 해산을 도울 때, (잘) 살피서 남자 아기는 죽이면 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면 산파들이 죽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해는 우리말 번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산파들의 대답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파들의 대답은 19절에 나오는

3) 특히 개역개정판 성서의 번역에 대한 측면을 연구한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박영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226-247.

데, 히브리 여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당도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는 것이다. 즉, 산파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기를 출산한 뒤라는 말이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출산을 도울 때, 잘 살펴서 남자 아기를 죽이는 것이었으므로, 비록 늦게 도착했다라도 아기를 죽이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왜 산파들은 자신들이 늦게 도착해서는 아기들을 죽일 수 없다고 보았는가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본문의 흐름은 산파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는 아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시간적인 요소가 산파들로 하여금 아기를 죽일 수 없게 했다면, 결국 애굽 왕의 명령 속에 이런 시간적인 요소를 규정하는 내용이 마땅히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 성서의 번역에서는 ‘잘 살펴서’라는 내용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보다는, 무엇을 잘 살펴라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산파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이해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독자들에게 BHS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번역해 주지 않고 있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제한적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영어번역에서는 이 연구에서 네 가지 경우만을 인용했지만, 두 가지 모두 BHS의 מִצְרַיִם을 그대로 번역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을 때, 독자들은 애굽 왕의 명령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산파들의 대답 내용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물론 이 מִצְרַיִם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그것을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여전히 단어 자체를 번역하지 않아서 그 단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한국의 독자들이 소개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적어도 BHS에 기록된 단어들은 번역해서 그 자리에 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번역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מִצְרַיִם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출애굽기 1:16에 본래 들어 있던 의미와 동시에 바로의 산파를 통한 인구 억제 정책의 의미를 한국의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2. 본론

출애굽기 1:16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바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행한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역에 시달리게 하는 첫 번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바로는 공개적으로 이런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대담하지 못했다고 본다.⁴⁾ 따라서 이 두 번째 정책은 ‘은밀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임으로써, 아직 부모나 친척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죽이도록 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가 산파들에게 내리는 명령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은밀한’ 시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 성서들에서는 이런 은밀한 시행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먼저 한글 성서들의 번역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2.1. 한글 성서 번역들

『개역』 (1961)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표준』 (1993)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개역개정』 (1998)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이상의 우리말 성서의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는 산파들에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주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로의 명령의 ‘은밀한’ 시행의 전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아기의 성별을 잘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번역이기 때문에, 산파가 아기를 죽이는 것이 은밀히 시행되어야 할 성격을 띠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산파가 아기의 성별을 보고 남자 아기면 죽이면 되는 것으로 바로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말이다. 산

4)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I. Abrahams, trans. (Magnes, 1967). 12.

파들은 신생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살펴서’라는 번역 자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파들이 신생아의 성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굳이 잘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잘 살펴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번역임을 이런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작 19절에서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장하기 때문에, 아기를 벌써 낳아버린다는 것이 산파들의 설명이었다. 먼저 산모들의 건강상태가 다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이런 대답을 통해서 모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건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제 아래서 모든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오래 진통하면서 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파들은 어떻게 매번 그렇게 분만장소에 늦게 도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바로는 역시 본문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이 본문은 그 초점이 바로의 명령의 은밀함이 제대로 준행될 수 없는 환경이었음을 산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이 본문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산파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바로의 추궁을 당할 때, 산파들이 대답한 것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즉, 산파들의 대답은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건장한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며, 그래서 출산 시에 힘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에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fact)과 산파들이 제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것(answer)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산파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대답을 하니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산파들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다는 것이다. 결과가 좋았더라도 여전히 거짓말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5) 차일즈는 이런 산파들의 거짓말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그의 주석서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16절에 대한 이런 우리말 번역에 기초해서 이 19절의 산파들의 대답을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산파들이 늦게 도착했다라도, 아기의 성별을 확인한 후에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의문도 앞서 언급한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 바로는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구 증가 억제책을 내놓아야 했다. 그 첫 번째가 노동을 많이 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건장한 남자 성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많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로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진행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고역에 시달릴수록 이스라엘은 그 수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바로는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으로 산파들에게 사내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사내아이들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일 수 있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어지는 세 번째 인구 억제 정책(1:22)에서는 바로가 공공연하게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일 수 있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 두 번째 명령에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아기들을 죽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명령은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은밀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었다고 보겠다. 그리고 이런 은밀한 시행을 전제로 한 바로의 명령에서 그 ‘은밀성’(secrecy)을 암시하는 단어인 **סְמִיּוֹת**이 사용되었고, 그것이 영어 성서들에서는 제대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영어 번역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2.2. 영어 성서 번역들

NRSV

When they act as midwives to the Hebrew women, and see them on the birthstool, if it is a boy, kill him; but if it is a girl, she shall live.

NIV

When you help the Hebrew women in childbirth and observe them on the delivery stool, if it is a boy, kill him; but if it is a girl, let her live.

NASB

When you are helping the Hebrew women to give birth and see them upon the birthstool, if it is a son, then you shall put him to death; but if it is a daughter, then she shall live.

있다. Childs,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22-24.

New JPS⁶⁾

When you deliver the Hebrew women, look at the birthstool: if it is a boy, kill him; if it is a girl, let her live.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번역 성서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읽고 묵상하는 번역은 한글 성서이고 동시에 영어권의 일반 신도들이 접하는 것이 이 영어 번역 성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예배 때 사용되는 영어 번역을 참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된 것처럼 출애굽기 1:16의 영어 번역은 우리말 번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NRSV, NIV, NASB, 그리고 New JPS 영어 성서 모두에서 מִיִּבְּרֵתּוֹ이라는 BHS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명사를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만대’(birthstool, delivery stool)가 된다. 즉, 분만대에 있는 산모들을 잘 관찰해서 남자 아기는 죽이라는 것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영어 성서의 번역을 참고하면, 왕의 명령은 원래가 산파들에게 ‘은밀히’ 아기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산파들은 남자 아기를 죽일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산모들이 분만대에서 아기를 낳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 아기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친척들이 보지 못했을 때, 이때만 아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분만대가 있는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와 친척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아기가 사산되었다든지, 아니면 출산 과정에 죽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아기를 죽이는 광경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바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유대출판협회(JPS) 영어 번역 성서의 경우에는 ‘birthstool’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 단어는 더 정확히 말해서 벽돌이나 돌로 된 지지대로서 출산 시에 애굽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릴 때 애굽 여인들이 사용하던 ‘분만대’를 옆두에 두고 이 단어를 언급해서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 מִיִּבְּרֵתּוֹ이라는 단어를 ‘분만대’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영어 번역은 독자들에게 바로의 명령에 있어서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은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산파들의 대답을 이해하는

6) Jewish Publication Society에서 출판한 영어번역성서(1985).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말 성서의 번역은 바로의 명령의 ‘은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מִן־הַבִּרְיָהּ**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아서 독자들은 산파들의 대답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로의 명령이 가지는 특성조차도 읽어낼 수 없게 되었다.

2.3. BHS 분석

BHS에 따르면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וְרָאִיתָ עַל־הַבִּרְיָ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and you see them upon the birthstool”이 될 것이며, 이를 번역하면, “너희가 그들이 분만대에 있는 것을 볼 때”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분만대’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מִן־הַבִּרְיָהּ**인데, ‘돌’이라는 명사의 양수형(dual form)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하면, ‘두 개의 돌들’이 된다. LXX은 ‘그리고 그들이 해산할 때가 되면’(καὶ ὥσπερ πρὸς τῷ τίκτειν)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마치 이 단어가 본문에 없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다. 어떻게 두 개의 돌들을 이 문장의 맥락에 맞게 번역할 것인가를 놓고 랍비들도 애를 썼으며, 탈굼 등에 나타난 견해는 그것이 ‘분만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구절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출산을 하는 것이 관행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⁷⁾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온 대표적인 출애굽기 주석서들의 해석은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먼저 카수토(U. Cassuto)는, “you shall look upon the birthstool”로 번역하고 있어서, **מִן־הַבִּרְיָהּ**을 ‘분만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예레미야 18:3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종의 둥근 형태의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기장이가 작업을 하는 곳(potter’s wheel)을 의미한다고 본다.⁸⁾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단어는 분명하게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관습적으로 앉게 되는 자리(seat)를 뜻한다고 주장하면서, 카수토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즉,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창조를 크눔(Khnum)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도기장이로서 진흙을 가지고 인간들을 빚어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מִן־הַבִּרְיָהּ**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통해 인간이 실제로 태어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분만대’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⁹⁾ 카수토의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7) C. Houtman, *Exodus* vol. 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253.

8)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14. 히브리어로 처음 출판된 것은 1951년이며, 영어로 처음 번역된 것은 1967년이다.

9) *Ibid.*

산파들의 대답처럼, 일단 산모가 출산을 한 다음에는 태어난 그 아기를 가족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죽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보았다.¹⁰⁾

차일즈(B. Childs)는 16절을 ‘look at the birthstool’로 번역하면서도 מִיָּבֵיטָּ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하면서 조심성 있게 접근하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그 위에 산모가 꿰어앉는 두 개의 돌로 된 ‘분만대’라고 주장한다.¹¹⁾ 이런 차일즈의 주장은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인 ‘두 개의 돌들’의 뜻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차일즈는 그러나 AmTr¹²⁾은 이것을 ‘생식기’(genitals)로 번역했는데, 이는 문맥에 따라서 번역한 때문이라고 보며, 또한 NAB는¹³⁾ LXX을 따라서 ‘출산’(giving birth)이라고 번역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⁴⁾ 바로와 산파들의 이야기는 민간설화(folk-tale) 형식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바로가 직접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고 보며, 더구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산파들의 직분에 반하는 살인명령을 내리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¹⁵⁾ 이런 주장은 문학장르의 시각에서 본문내용을 해석하는 그의 예지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산파들의 ‘현명한’ 대답은 처음에 바로가 인구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1:10) 말한 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차일즈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¹⁶⁾

프랍(W. Propp)은 מִיָּבֵיטָּ의 뜻이 불분명하다고 보면서, 예레미야 18:3에 나오는 도기장이의 ‘녹로’(wheel)는 이 출애굽기의 본문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¹⁷⁾ 하지만, 이 ‘두 개의 돌들’의 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고환(testicles)을 의미한다.¹⁸⁾ 둘째, 발판(pedestals)을 의미하는데, 여인들이 분만할 때 다리를 올려놓는 것을 말한다. 셋째, 벽돌들을 의미하는데, 애굽의 산파들이 신생아들을 올려놓았을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프랍은 첫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 셋째 가능성은 입증할 증거가 희박하며, 둘째 가능성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두 개의 돌

10) 16절의 מִיָּבֵיטָּ(산파들이 산모들을 보았다)이라는 동사와 17절의 מִיָּבֵיטָּ(산파들이 두려워했다) 동사는 철자 바꾸기(anagram)로 보면서 두 동사를 연관시키고 있다. Ibid.

11) B. S. Childs, *Exodus*, 5-6.

12) An American Translation of the Bible (Chicago, 1931).

13) The New American Bible (New York and London, 1970).

14) B. S. Childs, *Exodus*, 6.

15) Ibid., 17.

16) Ibid.

17) BDB에는 ‘bearing-stool’ 혹은 ‘midwife’s stool’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F. Brown, S. R. Driver, and Ch.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07), 7; William Propp, *Exodus 1-18* (New York: Doubleday, 1999), 139.

18) 더햄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J. Durham, *Exodus* (Texas: Word Books, 1987), 11-12.

들 ‘사이에’(between)라는 표현이 나와야 한다고 보면서, 첫째 가능성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히브리 문학 중에서 고환을 ‘돌들’이라고 불렀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¹⁹⁾ 성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파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았을’(look upon) 것이고, 단순히 쳐다보지는(simply see)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넷째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개의 돌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외음부’라는 것이다.²⁰⁾ 그러나 프랍은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본문을 번역할 때는 ‘look upon the two stones’로 쓰면서 직역을 하고 있다.²¹⁾ 이렇게 직역함으로써 그는 이 구절의 뜻을 해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석자의 임무는 여러 가능성들을 소개만 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 이유를 설명하며 그에 따른 본문 번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프랍은 해석자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하우트만(C. Houtman)도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אבנים**이 산모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두 개 혹은 네 개의 벽돌이나 타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²²⁾ 또 다른 견해는 그것이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모의 생식기(vagina)나 아이의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인데, 하우트만은 분만대로 보는 견해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출산 때의 산모의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본다.²³⁾ 하지만 이 견해는 **אבנים**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돌들’이라는 의미와의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바로의 명령을 기록한 16절에는 산파들이 어떻게 사내아이들을 죽일지에 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우트만에 따르면, 산파들은 출산 때, 은밀하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이 구절이 주는 인상은 아기가 사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²⁴⁾ 만일 히브리어 **אבנים**이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면, 여성들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성별이 결정되고 나자마자, 즉 첫 울음 소리를 내기도 전에 곧바로 사내아이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명백하

19) W. Propp, *Exodus 1-18*, 139.

20) *Ibid.*, 139.

21) *Ibid.*, 136.

22) Houtman, *Exodus*, 253.

23) *Ibid.*

24) *Ibid.*, 254.

다.²⁵⁾ 이렇게 하우트만은 산파들이 은밀하게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가 מִנְּבִיאִים을 산모의 생식기로 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번역은 이 단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엄연히 철자가 다른 단어인 מִנְּבִיאִים(남성의 생식기들)이라고 보거나, 혹은 단어를 분해해서 מִנְּבִיאִים + נָא로 보고 앞의 נָא는 두음첨가(prosthetic)로 보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²⁶⁾ 하지만, BHS 본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이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런 가정들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모의 생식기라는 번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번역이 아니라도 태어나는 순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מִנְּבִיאִים을 ‘분만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분만대에 있는 것을 볼 때’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6절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그들이 분만대에 있는 것을 볼 때,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산모는 해산을 하면 분만대를 내려와서 자신의 누울 곳으로 가서 쉬게 된다. 따라서 산모가 분만대에 있는 경우는 아기를 분만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산모가 분만대에 있을 때, 아기를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산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산모는 분만대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은밀하게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시간을 놓쳐 버렸다는 것이 산파들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애굽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대로 은밀하게 아기를 죽일 수 없었던 산파들의 상황이 이해될 것이고 아무런 벌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현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이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바로의 일련의 조치들을 ‘은밀성’(secrecy)이라는 시각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조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켜서 억압하는 방법이었다(1:11-14). 이는 겉으로 보기에 인구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는 장점이 있다. 그저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많이 일을 시켜서 부러먹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을수록 인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었다(1:12). 이 첫째 방법은 그 자체에 ‘은밀성’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역을 하는 것과 인구 숫자를 줄이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겠다. 은

25) Ibid.

26) Ibid., 253.

밀함과는 거리가 있는 ‘중립적 은밀성’(neutral secrecy)의 성격을 가지는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산파를 이용하여 사내아이들을 죽이는 두 번째 조치는 ‘은밀성’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족조차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파들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죽일 수 없었다는 대답을 통해서 그들도 은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은밀성이 강조되었던 두 번째 조치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바로는 누구나 히브리 사내아이를 강에 던져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공개적 명령을 내리고 있다(22절). 이 세 번째 조치는 공개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내아이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밀성의 반대개념인 ‘공개성’(openness)이 이런 조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바로의 세 가지 조치들은 그 은밀성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립적 은밀성’에서 ‘은밀성’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성’으로 결론짓고 있다.

3. 결론

바로는 ‘분만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내리는 명령이 은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산파들에게 주시시켰다. 산모가 분만대에 있을 때, 아직 가족들 가운데 누구도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사내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바로의 명령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던 ‘은밀성’은 ‘두 개의 돌들’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를 ‘분만대’로 번역하지 않고, 아예 번역에서 그 명사를 빼버렸던 한글 번역 성서들의 상황에서는 본문에서 나타날 수 없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 독자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바로의 명령을 단순히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뒤에 나오는 산파들의 대답의 내용을 읽을 때도, 그들의 대답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산모가 분만을 끝낸 후에 도착한 산파들이 왜 사내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게 된다.

산파들의 대답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건장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내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있다.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이 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말과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명령 가운데 강조되었던 ‘은밀성’이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산파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산파들이 출산을 도와줄 겨를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가 산파들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산파들의 뜻을 바로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들어있던 ‘은밀성’의 요소를 다른 요소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의 요소’였다. 늦게 도착한 것이 은밀성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바로와 산파들은 바로의 사내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절대적으로 은밀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명령임을 서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은밀성’을 바로는 ‘분만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냈고, 산파들은 ‘시간의 요소’를 통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 ‘은밀성’에 대한 내용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밀성’조차도 ‘은밀하게’ 혹은 ‘비밀스럽게’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와 산파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즉, 은밀성 자체도 은밀하게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바로와 산파의 모습을 본문은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분만대’라고 번역될 수 있는 סֵתֵר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본문 전체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일차적으로는 영어 성서들처럼 ‘분만대’를 BHS에 있듯이,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런 번역과 함께 본문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즉, 본문에 ‘분만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가 아이들을 은밀히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22절에 나오는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명령은 ‘은밀성’이 제외된 것으로서, 공개적으로 누구나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나일 강에 던져서 죽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밀하게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죽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바로는 이제 은밀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서 히브리인들의 반발을 사는 한이 있어도, 궁극적인 목적인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줄이는 것을 달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Keywords)

출애굽기, 이스라엘, 바로, 산파들, 은밀성.

Exodus, Israel, Pharaoh, Midwives, Secrecy.

<참고문헌>(References)

- 권성달, “출애굽기 3:14의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6 (2010), 7-31.
- 마르틴 노트, 『출애굽기』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 박영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226-247.
- 존 더햄, 『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John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d Books, 1987.
- 장석정, “이 재앙(출 8:16-19)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17 (2005년 4월), 9-31.
- 장석정, “일곱째 재앙 경고(출 9:13-21) 재고”, 「구약논단」 40 (2011년 6월), 6-32.
- Assmann, J. *Moses the Egyptian: The Memory of Egypt in Western Monothe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I. Abrahams, Magnes, trans., 1967.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 Coats, G. W., *Exodus 1-18*, vol. IIA, FOTL, Grand Rapid: Eerdmans, 1999.
- Currid, John D.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Michigan: Baker Books, 1997.
- Durham, J., *Exodus*, Texas: Word Books, 1987.
- Ford, W. A., *God, Pharaoh and Moses: Explaining the Lord's Actions in the Exodus Plague Narrative*, UK: Paternoster, 2006.
- Fretheim, T.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1.
- Gowan, D. E., *Theology in Exodu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Hoffmeier, J. K.,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Hort, G., “The Plagues of Egypt”, *ZAW* 69 (1957), 84-103 & 70 (1958), 48-59.
- Houtman, C., *Exodus*, vol.1 & 2,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1996.
- Humphreys, C. J., *The Miracles of Exodus: A Scientist's Discovery of the Extraordinary Natural Causes of the Biblical Stories*, New York: HarperCollins, 2003.
- Hyatt, J. P. *Exodus*, New Century Bible, London: Oilphants, 1971.
- Larsson, G., *Bound for Freedom: The Book of Exodu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Hendrickson, 1999.
- Loewenstamm, S. A. *The Evolution of the Exodus Tradition*, Hebrew orig. 1965,

Jerusalem: Magnes, 1992.

Meyer, L. *The Message of Exodus*, Minneapolis: Augsburg, 1983.

Morenz, S. *Egyptian Religion*, German orig. 1960, Ithaca.: Cornell University, 1973.

Noth, M. *Exodus*, German orig. 1959,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Propp, W. H. C., *Exodus 1-18*, AB 2, New York: Doubleday, 1999.

Tov, I.,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Fortress: Minneapolis, 2001.

<Abstract>

אֲבָנִים in Exodus 1:16 Reconsidered

Prof. Sok-Chung Chang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translation of אֲבָנִים in Exodus 1:16 from the perspective of textual criticism. In most Korean Bibles, this word is not even translated into Korean. The problem is not in incorrect translation but non-translation, which translators should avoid at all times. The Korean Bibles translate the Pharaoh's command to the Hebrew midwives like "you should look at them closely, if it is a boy, kill him..." As a result, those translations do not deliver the hidden sign of 'secrecy' originally embedded in Pharaoh's command of killing Hebrew male infants. According to them, all the midwives had to do was to look at a child closely and find out that infant's sex. In this context, the answer of the midwives when they were asked by the king is hardly understandable to the readers. It is because the late arrival of the midwives does not justify the inability of killing male infants no matter how well the interpreters defend the translated texts.

In contrast to Korean Bibles, most English Bibles translate the word אֲבָנִים as BHS writes it in v.16. Therefore, their translations go as follows: "when you see them on the birthstool, if it is a boy, kill him..." We know that the word אֲבָנִים could be translated in several ways because the scholars are not sure about its exact meaning. Literally, it means 'two stones' whatever it actually means in the context of Exo 1:16. I compared several leading scholars' interpretations of this word and analyzed their arguments in this study. LXX does not translate this word and simply says "they are at the point of giving birth" as if the word is not there. It is possible that Korean Bibles follow the LXX translation as they had done before.

When the English translations reveal the existence of the word אֲבָנִים they show the secrecy hidden in the Pharaoh's command of killing the infants. The first measure the king took in order to reduce Israel's population was to make them work more. The command itself did not have any secrecy but it did not

work at all. This second measure focused on the secrecy because the king feared whether Israel became furious about this command of killing their babies. The fact of the matter was that the midwives had to kill the infants secretly. Therefore, this crucial secrecy was delivered to the midwives in the command by using the word אֶסְפֹּרֶת. As BHS has it in the text, the Korean Bibles should translate the word in order to let the readers know the secrecy of the king's command and understand the shrewdness of the midwives' answer.